

2024. 4. 18.(목) 석간용

이 보도 자료는 2024년 4월 18일 오전 09: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.



보도 자료

담당 부서: 도시공간본부 도시재창조과

도시재창조과장

신윤철

02-2133-4630

사진 없음 사진 있음 쪽수: 3쪽

도시재창조계획팀장

박정진

02-2133-4639

충현2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(안) “수정가결”

- 서울시는 2024년 4월 17일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「충현2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(안)」을 “수정가결” 하였다고 밝혔다.
- 대상지는 서대문역 주변 충현 정비예정구역에 해당하며 30년 이상 된 노후·불량 건축물이 밀집하여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한 재개발구역 지정에 대한 요구가 지속되어 왔다.
- 이번 정비구역 지정으로 정비기반시설(도로) 제공, 건축물 기부채납 등에 따라 용적률 941.6% 이하, 높이 104.8m 이하로 결정되었으며 이에 따른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용도의 건축물이 들어설 예정이다.
 - 대상지 주변 정비기반시설(도로) 118.6㎡를 확보함에 따라 이면도로의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이면부 곳곳에 위치한 식음시설 등 골목상권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하였다.

- 또한, 지상 3층에 층현 주변의 사무 수요를 고려하여 공유오피스 등의 목적으로 활용가능한 공공임대산업시설을 조성 후 건축물 기부채납될 예정이다.

- 아울러 지상 2층에 개방형 라운지를 조성하여 회의실, 세미나실 등의 공용공간을 대상지 인근 소규모 기업 및 주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업무 관련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.

- 서울시는 “이번 정비구역 지정이 서대문역 일대 상업지역에 적정 규모 이상의 업무복합 개발을 유도하여 낙후된 상업공간의 업무기능을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.”고 밝혔다.

붙임 위치도 및 조감도 1부. 끝.

□ 위치도



□ 조감도

